



광주여성길은?

광주여성길은 2022년부터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광주여성 근대역사탐방로의 이름입니다. 두릅길, 백단심길, 홍단심길 3코스의 도보투어를 통해 광주여성 백년의 역사를 만나는 인문학적 여행 프로그램이죠. 두릅길은 양림동을 중심으로 근대여성교육과 여성선교사를 주제로 하며, 백단심길은 3.1운동과 항일에 투신했던 여성들의 삶을, 홍단심길은 광주학생독립운동과 '최초'의 근대적 직업을 가진 광주여성들의 발자취를 따라 걷습니다.

“길위의 길, 발자국 위의 발자국”의 의미는?

우리가 무수히 스치고 지나가는 길이지만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때 전혀 다른 길이 된다는 의미에서 '길 위의 길'입니다. 또한 광주여성길은 우리가 걷고 있는 수많은 길을 이미 걸었던 선배 여성들의 삶을 기억하고,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뚜벅뚜벅 나아갔던 진취적이고 주체적인 발자국을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발자국 위의 발자국'을 새기는 일입니다.

도보투어 신청 방법

운영기간 봄(3월 1일~6월 30일), 가을(9월 1일~11월 30일)
운영시간 오전 10시 / 오후 2시(조율 가능)
투어시간 코스당 1시간 30분
해설언어 모든 투어에 전문해설사 배치 / 한국어, 영어, 일어(신청 후 담당자와 협의)
집결지 두릅길, 백단심길 : 광주 남구 양림동 행정복지센터 옆 버드나무
 홍단심길 : 광주 동구 금남로공원(금남나비정원)
문의 광주여성가족재단 062-670-0532

참가신청



광주여성가족재단 소개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 광주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2011년 설립된 광주 유일의 여성가족정책 전문기관입니다.

주요사업



광주여성가족재단
Gwangju Foundation for Women & Family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07번길 15 광주시민회관 1, 3, 4F
T. 062-670-0500 F. 062-670-0505 www.gjwf.or.kr

@gjwomenfamily
@gjwomenfamily

길 위의 길, 발자국 위의 발자국
 두릅길과 백단심길, 홍단심길을 따라
 광주여성의 삶을 만납니다.



광주여성 근대 백년의 역사를 걷다

광주여성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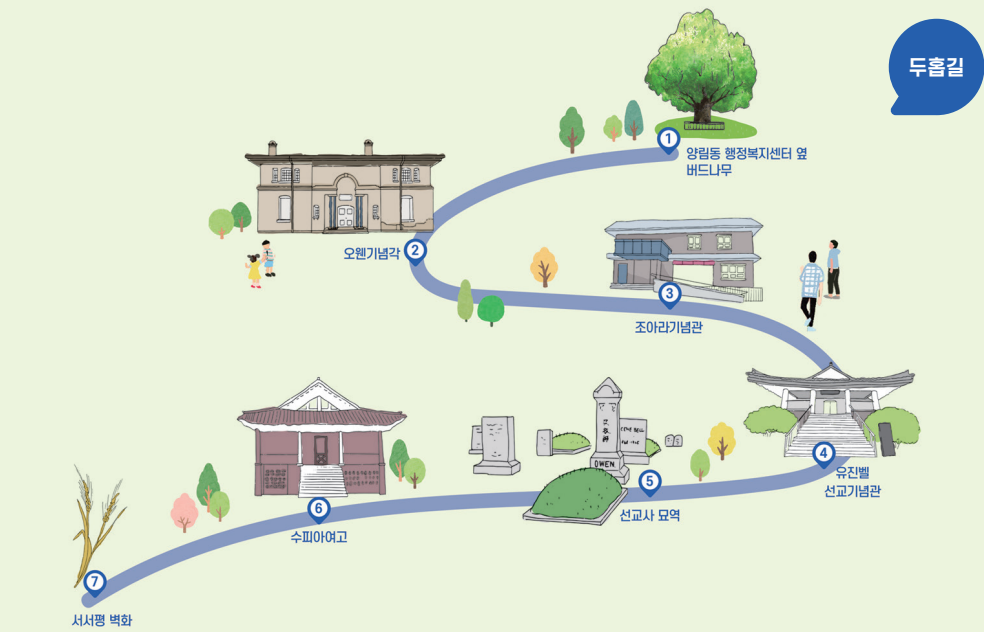
도보투어

광주여성가족재단
Gwangju Foundation for Women & Family

근대여성교육의 시작과 서서평 정신, 두흠길

왜 두흠길인가요?

‘흠’은 부피를 재는 단위로 약 180cc입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광주에 온지 22년만에 과로와 영양실조로 생을 마쳤을 때 남긴 것이, 잡곡 두흠, 반쪽짜리 담요, 엽전 몇푼이었습니다. 광주를 위해, 가장 낮은 자를 위해 모든 걸 내어준 그의 뜻을 기려 붙인 이름입니다.



서서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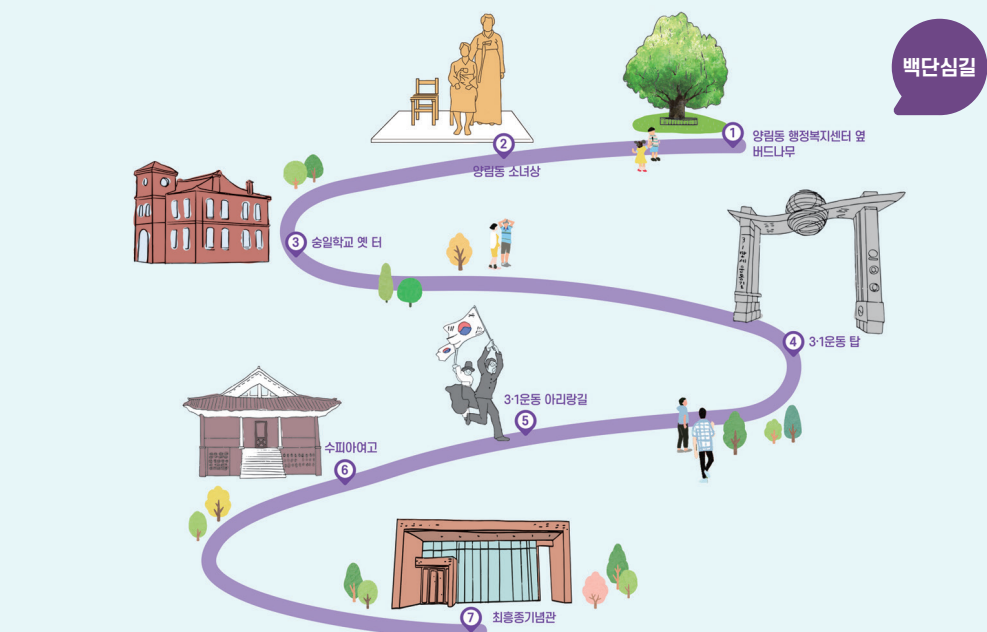
왜 서서평인가요?

서서평(徐舒平, Elisabeth Johanna Shepping, 1880~1934)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한 푸른 눈의 광주여성”입니다. 1880년 독일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후 1912년 남장로교 외국선교국 파송으로 조선에 오게 됩니다. 서서평은 제중병원(현, 기독교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시작한 이후 한국 최초의 여성신학교인 이일학교(현, 한일장신대)를 세워 여성들을 가르쳤고, 양림동 일대에는 봉나무를 심어 양잠, 직포 기술 등을 가르쳐 자립정신을 익히게 했습니다. 또한 오방 최홍종과 함께 한센환자를 위한 시설 건립을 위해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광주에 도착한 날부터 생을 마감한 그날까지 미혼모, 고아, 한센인, 노숙인 등 가난하고 아픈 이들을 돌봐 주어 ‘나환자들의 어머니’, ‘조선의 마더 테레사’로 불립니다.

독립을 향한 꺾이지 않는 의지, 백단심길

왜 백단심길인가요?

‘단심’은 무궁화 꽃 가운데에 붉은색으로 퍼지는 부분을 말합니다. 백단심은 흰 꽃잎에 붉은 단심이 있는 꽃으로 가장 보편적인 무궁화이죠. 광주여성길의 백단심길은 하얀 한복저고리에 피어난 독립을 향한 열망을 표현합니다. 여성들은 남성들 못지않게 항일저항의 의지를 불태우며 3.1운동에 참여했고, 광주공동체가 억압과 불의에 맞서 투쟁하는 물결을 이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점을 형상화한 길이 백단심길입니다.



김필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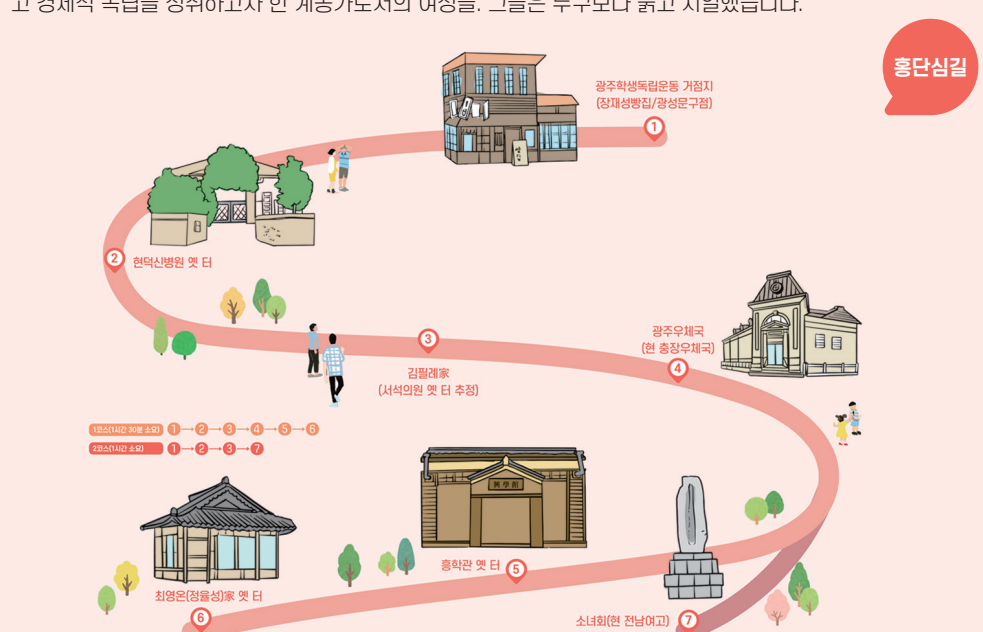
왜 김필레인가요?

백단심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잔잔한 담쟁이넝쿨 위로 묵직한 숨결이 느껴집니다. 말보다 실천으로 시대를 이끈 여성, 김필레(金弼禮, 1891~1983)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필레는 1907년 서울 정신여학교를 졸업하고 1908년 관비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일본 동경여자학원에서 유학합니다. 귀국 후 1918년 최영옥과 결혼하여 광주 양림동에 거주하면서 동경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서를 복사하여 전국에 살포하다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감옥살이를 하고 출소 후 수피아여학교 교사이자 흥학관의 야학교사로 참여합니다. 1922년 한국 YWCA 창설과 광주 YWCA창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광복 후 수피아여학교 교장에 취임합니다. 여성교육에 한평생 헌신한 김필레는 “여성도 배워야 한다. 그래야 남성들에게만 의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여성에게 삶의 주도권을 돌려주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절 가장 치열했던 붉은 삶, 홍단심길

왜 홍단심길인가요?

홍단심은 분홍 혹은 붉은 꽃잎에 더 붉은 단심으로 이루어진 무궁화꽃입니다. 홍단심길은 광주 총장로의 여성들과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가장 진취적이었던 여성들을 조명합니다. 광주최초의 여자의사인 현덕신과 일제의 경제착취에 저항했던 동아부인회의 여성들, 그리고 그 시대 가장 급진적인 이름인 비밀독서모임 ‘소녀회’를 결성한 장매성 등이죠. 사회가 부여한 성역할을 넘어서 전문직업인이자 사회운동가로서, 저항운동가로서, 그리고 경제적 독립을 성취하고자 한 계몽가로서의 여성들. 그들은 누구보다 붉고 치열했습니다.



현덕신

왜 현덕신인가요?

현덕신(玄德信, 1896-1963)은 1927년 광주 최초의 부인과를 개설한 여의사이입니다. 1896년 평안남도 용강에서 태어난 현덕신은 이화학당을 졸업한 뒤 평양 진명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현덕신은 당시 조선의 산모들이 출산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많았는데 남의사에게 몸을 보이며 하지 않는 관습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현덕신은 ‘조선 여자들을 위한 봉사적 생’을 위해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1918년 동경여자의학전문학교에 입학, 졸업 후 총독부병원, 동대문부인병원 등에서 의사로 근무합니다. 1923년 동아일보 기자였던 최원순과 결혼 후 광주로 내려와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개업하게 되죠. 여의사로 활약하는 가운데서도 사회운동을 이어나가 광주 YWCA 회장을 역임했고 근우회 광주지회를 설립했습니다. 항상 단발을 유지했던 이유가 머리 손질할 시간이 아까워서였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듯, 현덕신은 한평생 민족의 독립을 위해, 여성과 소외된 이들을 위해 살았던 여성 리더였습니다.